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852호 - 태국] 아세아 진출의 관문 태국

아세안은 중국 다음으로 큰 한국의 교역 상대다.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동질성 등 경제 외적 요인에 더해 해외 진출의 필요성이 절실한 우리 기업에는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이 지역이 우선 진출 대상이다. 종전과 같이 아세안의 특정 국가만을 진출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세안 전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어느 나라를 통해 아세안으로 접근할지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1997년 채택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비전 2020'은 2020년까지 안정적으로 번영하며 경쟁력을 갖춘 아세안 경제 지역이 될 것을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3년 경제 통합의 최종 목표로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목표로 하는 '아세안 의정서 II'를 채택했다. 그리고 2005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를 2015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중략)

정재형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 태국 사무소장

- [제852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